

저출산에 전남 17개 시·군 30년내 소멸

전국 84개 지자체 위기... 고흥 소멸위험지수 0.177 '최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남 지역 17개 시·군 등 전국의 84개 기초자치단체가 적어도 30년 이내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해당 지역의 가임기 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나눈 값인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지수가 1.0 이하면 '인구쇠퇴', 0.5 이하면 '인구소멸' 단계로 보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부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2014년부

터 지난 7월까지 전국의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예상치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인구소멸 단계에 접어들어 기초단체는 2014년 79곳에서 지난해 80곳, 올해는 7월 기준으로 84곳까지 늘어났다.

전남도의 경우 22곳 중 17곳으로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소멸위험 기초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었다. 이어 경북이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16곳이, 경남이 18곳 중 11곳, 전북이 14곳 중 10곳, 강원이 18곳 중 8곳이 각

각 소멸위험 지역이었다.

특히 전남도는 자체 소멸위험지수가 지난 7월 기준으로 0.52를 기록,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안에 인구소멸 단계로 들어갈 전망이다. 황 의원 측은 분석했다.

전남의 17곳은 목포·여수·순천·광양·무안을 제외한 모든 군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고흥군의 소멸위험 지수가 0.177로 가장 위험도가 가장 높았으며 신안 0.214, 보성 0.219, 함평 0.226, 곡성 0.238 순이었다.

인구소멸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30년 이내에 연립대별 인구가 극소화돼 지자체로서 기능을 잃고 다른 지자체에 흡수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황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전국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지난 7월 현재 0.999였으며 광주의 소멸위험지수는 지난해 7월 1.267에서 지난 7월 현재 1.201로 소멸위험 속도가 증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산의 경우 동구와 영도구가 인구소멸 단계로 진입, 처음으로 대도시 지역 기초단체가 포함됐다.

황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대도시로까지 확산한 만큼 국가 차원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방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39세 젊은 여성이 지역에 정착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협동하는 대학 공동체 조성 건학 100년 초석 다지겠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 후보 당선자

“대학 구성원들간 ‘흥(興)을 돌고 고(高)를 쌓아서 ‘협동(協)하는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고 건학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제16대 조선대 총장 선거에서 총장 후보(1순위)로 뽑힌 강동완 교수는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내비쳤다. 입학성 감소 및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과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위기를 헤쳐나가 호남 대표 사학의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만만찮은 과제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강 후보는 이같은 점을 감안, 건학 100년을 생각하며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신바람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36.5도의 따뜻한 휴머니즘을 담아 사람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365일 구성원들을 존중하면서 3가지(사람·과학·재정 중심) 미션·6가지 경영철학을 5가지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365 플랜’도 선보였다. 취업과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는 조선대 설립이 7만2000명의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이뤄진 점에 착안, ‘어게인(again) 7만2000’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화’로 한계에 내몰린 신입생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으로 국제학부를 개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내년제 대선 끝에 총장 후보로 뽑힌 만큼 공약도 구체적이다.

그는 “소중한 인재들이 찾아오고 유능한 인재들이 자유롭게 연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해 호남 대표 사학으로 국내 대표 대학, 아시아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후보는 경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4기 원우다. /김지용기자 dok2000@

광주도시공사-여수 안포마을 1사1촌 협약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와 여수 안포마을(어촌계장 이희한)이 20일 '1사1촌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공기업과 전남 어촌간 1사1촌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KT&G 전남본부와 해남 송호마을이 지역기업과 전남어촌과는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특화지원센터)는 20일 “광주도시공사와 여수 안포마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잘 사는 전남 어촌과 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과 교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여수 안포마을은 가막만에 자리한 어촌으로 예로부터 새조개와 피조개로 유명한 곳이다. 지난 2014년 해양수산부의 6차 산업화 시범마을로 선정되면서 가공과 유통 등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면에 힘을 쏟고

있다.

이희한 어촌계장은 “피조개의 중간 유통과정이 많을수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다”며 “가격 거품을 빼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2015년 어촌수산물발경진대회'에서 안포마을의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이 최우수상에 선정돼 향후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문제는 올해부터 이 같은 지원이 사라지고 자립을 해야 한다는 데 고민이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도시공사는 임직원에게 휴가 등 비업무일에 마을 방문을 권고하고 안포 마을의 특산물 판매 증진을 위해 적극 홍보, 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오는 11월 26일에는 안포마을 피조개를 알리기 위해 '제1회 안포피조개축제'가 예정돼 있다. 전남문화관광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결합한



20일 오전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광주도시공사와 여수 안포마을이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중재로 '1사1촌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류재영 특화지원센터장,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조용준 광주도시공사 사장, 이희한 안포어촌계장.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거버넌스형 축제’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100가족(신청 1만원)을 초청해 ‘회원제 축제’로 개최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특화지원센터는 전남 어촌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원하는 지역 기관, 기업

과 전남 어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할 도소매, 유통 등 관련 지역 기업의 신청도 접수한다. 문의 062-220-0581. /박성천기자 skypark@

내진설계 적용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

지진에 대응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중·개축할 때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건물·용적률 등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도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

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된 '지진방재 개선대책' 주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했다. 현재는 층수기준으로 '3층 이상 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다. 이외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등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내진설계가 안됐거나 현재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수선이나 개·증축할 때 내진보강을 시행하면 건물·용적률·높이기준·공차비율 등 건축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연합뉴스



불안한 경주 1주일만에 4.5 여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 1주일만인 19일 규모 4.5의 강한 여진이 다시 발생하자 전국이 불안에 휩싸였다. 진앙인 경북과 인근 영남 지역에서는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근거 없는 괴담도 다시 퍼지는 등 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19일 오후 8시 33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 깊이 14km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

다. 이번 지진은 이날 12일 경주 인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 한 이후 300여 차례 이어진 여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1주일 만에 다시 강한 여진이 발생하자 진앙과 가까운 경북 주민들은 큰 불안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 12일 지진의 진앙인 경주 내남면 부지리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진동을 느낀 후 크게 놀라 마을회관으로 속속 대피했다.

경주에서만큼이나 큰 진동을 느낀 부산·울산 등 영남 지역 시민들도 공포감에 휩싸인 건 마찬가지다. /연합뉴스

전국도 불안 주요 시설물 안전 촉각

경주에서 규모 4.5의 강한 여진이 다시 발생하자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국가 기관 등이 주요 시설물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와 기관별로 원전, 문화재, 항만, 철도, 산업단지, 학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지하철과 상수도, 가스관 등도 핵심 점검대상이다.

원전, 철도 등 핵심 국가기간 시설물 등에서는 지금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민가 등 민간 건축물 등은 일부 균열, 파손 등이 신고됐다. 기관들은

주요 시설과 건축물, 문화재에 대한 여진의 영향을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경주 원전발전소, 규모 4.5 여진 진앙과 가까운 고리원전은 여진에 따른 설비와 기기를 점검하고 추가 여진에 대비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5개년 대응책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마다 지진 대응책 마련에도 분주하다. 경북도는 건축사회 등 전문가 단체와 함께 지진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지붕이 부서진 건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사람을 찾습니다

162cm의 아연 체격, M자형 대머리, 목 뒤에 강낭콩 크기만한 혹이 있음

가슴, 배, 머리에 수술자국이 있음

실종 당시 심정계이트를 글자가 자수로 놓인 검은색 행, 뒷면은 흰색인 모자를 쓰고, 상의 모시 옷깃이 없는 반팔에 끈서 망사 주머니가 있는 조끼, 하의 검은색 바지, 흰색 바닥에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3차례 암수술과 오랜 투병생활로 치매증상 있으며 체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하고 청력이 약함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평상시에 약을 못드시면 정도 제대로 못주무셨음) 갑자기 통증이 있을시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함

실종일시 : 2016년 8월 3일
실종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지구 중흥아파트 정문 인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빠 좀 찾아주세요!!

최규복님 아들 최현성
010-5113-6582

혈당조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 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회사창립 20주년 감사 사은행사로 본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황칠삼채여주진액 1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레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 250평 토지 17평 ▶ 감평가 2억93천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광천동 5층건물 675평 대지 223평 신세계사거리코너 1종일반주거지역 ▶ 감평가 2억4천만원 최저가 2억4천만원
- 서구 벽진동 주택 47평 대지 176평 주변환경, 투자까지 투자까지, 도로계획 ▶ 감평가 1억8천2백 최저가 1억8천2백
- 서구 쌍촌동 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 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평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담

- 서구 치평동 상가 10층중 10층 건물 146평 토지 26평 롯데마트사거리, 전방종용 ▶ 감평가 8억8천 최저가 5억원
- 장성군 황명면 2층주택 64평 대지 35평 주변환경 좋은 투자까지, 건물상태 좋음 ▶ 감평가 1억1천4백 최저가 8천만원
- 담양군 대덕면 토지 1014평 전원주택지 및 농지포함 투자까지, 주변환경 좋음 ▶ 감평가 4천6백 최저가 4천6백
- 북구 두암동 대우빌라 3층중 3층 건물 40평 대지 46평 주변환경 좋음 ▶ 감평가 2억5천만원 최저가 1억7천2백

▶ 광산구 하남3지구 38차선 대로접 상업지역 대지 132평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형 ▶ 거래가 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무료 대 특강(롯데백화점)

99%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 제시!!

장소	롯데백화점 문화 센터
일시	2016. 9. 21(수)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 (사전 예약)

강/의/내/용

- 1교시 저성장·저리 시대 부동산이 담긴 이유 분석.
- 2교시 우리가 배려는 수익형 부동산의 로망에 답하다!! -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가치 분석 방법 오픈 -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 및 꼭 피해야 할 위험 분석 - 수익형 부동산 투자 각종 사고 사례 및 부동산 투자시 위험성 체크리스트
- 3교시 국토 개발 계획에 따른 부동산 매물 공개 및 정확한 수익 분석 노하우 - 농지가 뜰어 되는 사례/뜰어 되는 이유? - 뜰어 되는 농지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 4교시 개발지역 투자로 노후 연금 이상의 수익 내는 매물 찾기 투자 방법 - 디벨로퍼가 확실한 개발지 제대로 파악하는 노하우 원천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방송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15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김영표